

영어 통사변화와 문법이론*

金 寅 淑

(영어영문학과 교수)

본고에서는 영어 통사변화에 관한 문법이론의 정립과정을 검토하고, 특히 초기현대영어의 통사부문에서 일어난 변화들에 관한 Lightfoot의 가설과 문제점들을 알아본다. 제 1 절에서는 영어 통사변화 연구가 직면하고 있는 난점들을 살피고, 제 2~4 절에서는 Klima, Traugott, Lightfoot의 견해들을 차례로 검토하며, 제 5 절에서는 Lightfoot의 문법이론을 요약한다.

I.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의 통사변화연구는 음운변화나 어형변화의 연구의 뒷켄에서 그 역할이 미약했으며, 따라서 그 위상이 격하되었던 게 사실이다.¹⁾

통사변화 연구의 난점들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i) 통사변화 연구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은 최소한 한 언어의 두 단계의 문법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음성 기호 혹은 음소의 수효는 일정하고 목록의 작성이 가능하지만 문장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며 그 수효는 이론상 무한정이다. ii) 통사변화의 연구분야에서는 음운론에서와 같은 연구유산이 없다. 신문법학과(neogrammarians)에서는 음운법칙에 의해 설명되는 많은 음의 대응관계들을 제시하고 음변화들을 밝혀 왔으나, 통사론에서는 대응관계나 통사변화규칙이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iii) 음의 대응관계가 주어지면, 음운론자들은 연구대상 언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반하여, 통사론자는 자연스런 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다. iv) 통사변화의 자연스런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명백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문헌에 없는 조어(祖語)의 문장들을 재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조어의 음운론적 형태론적 구성요소들을 재구성하는 데 사용되어 온 기술장치가 그대로 통사론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핀 통사변화에서의 접근에 대한 난점들은 통사기술(統辭記述)에 있어서의 적절한

* 본 연구는 198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 King (1969, p.140): Syntax has always been something of a stepchild in the family of historical linguistics... There has been no great "breakthroughs" in historical syntax comparable to the Law of Palatals, Verner's Law, or the discovery of Indo-European laryngeals. We have specific techniques for reconstruction of much of the phonological structure of proto-languages, but we do not have similarly codified techniques for historical syntax.

이론적 근거가 없는 데서 연유한다고 보겠는데, 이론이 없는 연구는 기껏해야 언어자료의 수집과 조잡한 분류로 끝난다. 역사언어학자들의 해박한 지식과 예리한 직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구가 대개 관찰적 타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²⁾

그런데 최근의 몇가지 발전이 통사변화 연구에 밝은 전망을 비추어주고 있다. 그 첫째는 표면구조에서 드러나는 언어보편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인데, 이는 어순(word order)의 유형에 바탕을 두고 통사변화를 설명하려는 Greenberg(1966)의 연구에서 비롯되는 통사연구의 한 갈래의 발전이다. 둘째는 영어의 구문형식들을 요령있게 간추려 모은 Visser(1963~73)의 역작이다. 셋째는 Klima(1964a, b), Traugott(1966, 1972), Lightfoot(1977, 1979)의 연구로 이어지는 생성문법이론에 의한 연구의 정립이다.

2.

Klima의 초기 연구(1964a, b)는 방법론적인 명쾌성에 있어서 가히 압권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대두한 통사변화에 관한 생성문법적인 접근들 중에서 그가 처음으로 이 방면에 중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³⁾

그는 영어 문체의 변이형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영어 대명사 형태변화의 시기를 4단계(L1=후기 중영어, L2=18세기, L3=18세기말 이후의 속어적 방언, L4=현대영어의 한 방언)로 설정하고, 변형문법적 규칙에 의한 설명을 시도했다.

그는 이 4단계의 변화를 문법으로 형식화하기 위해 다음 세가지 규칙을 설정했다(1-3).⁴⁾

(1) Case Marking

$$X \left\{ \begin{matrix} V^t \\ P^t \end{matrix} \right\} \text{Pronoun } Y \Rightarrow 1 \ 2 \ 3 + \text{case } 4$$

(2) *wh* Movement

$$Q \ X \ NP \ Y \Rightarrow 3 \ 2 \ 4$$

(3) Subj-Aux Inversion

$$\left\{ \begin{matrix} Q \\ NP \end{matrix} \right\} NP \ \text{Aux} \ X \Rightarrow 1 \ 3 \ 2 \ 4$$

이 규칙들은 table 1에 제시한 규칙순대로 적용되고 있다. L1의 문법에서는 격표시가 타

2) Cf. King(1969:141)

3) 통사문제에 대한 변형생성문법적 접근이 역사언어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 Kiparsky(1968a)의 인구어의 '역사적 현재'에 관한 연구는 그 소재가 영어가 아니라는 것과 비교연구가 아닌 공시적 연구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으며, 다만 그의 연구는 의미에 바탕을 두지 않고 통사에 바탕을 두고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뒤의 몇가지 주목할 만한 연구들을 촉발하였다는 것으로 그치겠다. 음운론에서 적용되어 온 규칙추가, 규칙소실, 규칙제배열, 재구성 등이 통사에서도 그대로 통할 수 있다는 신념이 이들 연구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을 부연한다.

4) 이 규칙들은 EST에 맞추어 고쳐놓은 Lightfoot(1979)에 의거하였음.

Table 1. Stylistic Variation in English

L1	L2	L3	L4
he and I left			him and me left
it was I		it was me	
who could see him?			
whom could she see?	who could she see?		
whom did he speak with?	who did he speak with?		
who was it?			
he knew who it was			
he knew whom he spoke with	he knew who he spoke with		
the man who saw him left			
the man whom I saw left	the man who I saw left		
the man whom he spoke with left	the man who he spoke with left		
the man with whom he spoke left			(does not exist)
* 규칙적용 순서 :			
L1	L2	L3	L4
R1 Case Marking	wh Movement	wh Movement	lexical re-analysis
R2 wh Movement	Case Marking	Generalized C Marking	
R3 Subj-Aux Inversion	Subj-Aux Inv.	Subj-Aux Inv.	

동사나 전치사 바로 뒤에 오는 모든 대명사에 대격어미를 부여한다. 이 규칙은 wh-이동에 앞서 적용되며, 따라서 wh 대명사는 그것이 최초의 구절표시에서 타동사나 전치사 뒤에 놓일 때는 항상 대격으로 표시된다. L2의 문법에서는 wh-이동이 먼저 일어나고, 따라서 격표시 적용을 막아(bleed)버린다. L3의 문법에서는 격표시가 타동사 뒤의 대명사뿐만 아니라 계사(copula) 뒤의 대명사에도 확대되고 있다. L4의 문법에서는 격표시가 없어지고 어휘재분석이 일어남으로써 대명사의 주격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으며 대격에 의해 대치된다.

통사변화의 이같은 예는 음운변화에 관한 기술과 흡사하며, 음운론에서 원용되는 규칙제 배열, 변형규칙의 간단화, 기저어휘형태의 재구성 등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사실상, 통사변화 이행방식은 음운변화에서 일어나는 것과 흡사할 수가 있다.⁵⁾

언어변화를 일으킨 새세대가 whom 교체(whom Replacement)란 새로운 규칙을 도입함으로써 절 앞에 있는 whom을 who로 대치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 규칙이 순환성이 있

5) Halle(1962)가 시사하는 바에 의하면, 음운부문의 말미나 자연스런 틈 안에 하나의 규칙을 추가함으로써 성인들의 문법이 극히 피상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반해서, 언어습득세대의 문법은 그들의 언어습득 과정에서 보다 근본적인 재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성인문법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L1에서 L2에 이르는 격표시의 변화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다음의 (4)처럼 형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whom* Replacement

who + case X \Rightarrow *who* X

만약 *whom*이 전치사 뒤에 오거나 절이 시작되는 위치에 오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기술이 충족되지 않아 규칙적용이 안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규칙을 L1에 적용하면 L2의 결과를 초래한다. 뒷세대가 *whom* Replacement를 제거하고 격표시를 *wh-*이동 뒤로 재배열함으로써 문법을 간단화하는 재분석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생성문법의 변형부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시적 변화에 관한 초기 연구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러 시기들에 걸쳐 부분적인 문법들이 형식화되고는 있지만, 왜 이같은 변화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이나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문법이론을 Klima의 연구에서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3.

Traugott의 두 개의 논문(1965, 1969)과 1972년에 펴낸 *The History of English Syntax*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매우 계몽적인 연구이다. 그녀는 고영어, 중영어, 현대영어에 걸쳐 영어 조동사의 범주에서 일어난 일련의 변화는 구구조규칙의 점진적인 간단화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음운론에서 말하는 규칙의 간단화를 통사변화에 원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관찰된 문헌자료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훌륭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뒤 그녀의 연구방법에는 몇가지 방법론적인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i) Traugott가 제시한 고영어 조동사의 확장규칙을 보면, 문헌에 없는 문장은 비문으로 간주한다는 가정하에 만들어낸 규칙들임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우연한 갭(*accidental gap*)일 수도 있고 또는 문체상 기피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ii) 충분히 제한적인 문법이론을 결여하고 규칙을 자의적으로 남용함으로써 시대별, 개별적 문법의 기술에 상당한 불확정성을 가져오고, 따라서 문법변화의 형식화에도 같은 결과를 미친다. (iii) 현대영어문법의 어떤 규칙이나 특성을 취하여서 그것이 고영어나 중영어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했겠는가를 따지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초기의 문법이 후기의 문법이나 주장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위에서 약술한 Traugott의 방법론적 하자들 (i)과 (iii)에 국한시켜 좀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에 없는 문장은 비문이라는 가정은 아래와 같은 그녀의 고영어 조동사 규칙에서 엿볼 수 있는데 설득력이 빈약하다.

$$(5) \text{ Aux} \rightarrow \left(\left\{ \begin{array}{l} \text{PP-habb, in env. } V_t _, V_i \text{ move} _ \\ \text{PP-wes, in env. } V_i _ \\ \text{PrP-BE} \end{array} \right\} \right) (\text{Inf-M}) \text{ T}$$

이 복잡한 규칙은 (6a), (6b)는 생성해낼 수 있으나 (6c)는 생성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 같다.

- (6) a. ic sceal feohtende beon 'I shall be fighting'
- b. ic sceal gefuhten habban 'I shall have fought'
- c. *ic sceal feohtende gebeon habban 'I shall have been fighting'

규칙 (5)는 또한 보조동사 없이 완료형과 진행형이 공기하는 I have been fighting의 생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녀가 제안하고 있는 증영어 조동사 규칙 (7)은 문헌에 없는 (8b)가 비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7) \text{ Aux} \rightarrow \text{T(M)} \left(\left\{ \begin{array}{l} (\text{have-PP}) \left(\left\{ \begin{array}{l} \text{be-PrP} \\ \text{do} \end{array} \right\} \right) \\ \text{be-PP, in env. } _ V_i \text{ move} \end{array} \right\} \right)$$

- (8) a. we have been waytynge al this fortenyght
- b. *we were been waytynge al this fortenyght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것은 be의 연속을 피하려는 문체상의 기능으로 볼 수도 있다.

사어(死語)의 문법을 기술함에 있어서 어학도는 모름지기 문헌에 나타나는 문장들과 그러지 못하는 문장들을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하겠지만,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우연적인 갭인가 아니면 비문인가의 여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문법의 자연성(naturalness)이 음운론에서도 흔히 운위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예를 들면, x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모든 현행 언어들에서 y라는 특성도 갖고 있다면, 대부분의 언어학자는 그 이전단계의 문헌에서 y의 부재를 다만 우연적인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특성 y를 지닌 문장을 정형문으로 간주 내지 형식화하는 그런 문법을 기술할 것이다. Traugott의 고영어 및 증영어 조동사 규칙에서 제외시킨 비문들에 대응하는 현대영어 문장들은 모두 정형문이며 다만 통계적으로 드물고 특히 문학작품에서 드물다는 것뿐이다. 더욱이 보조동사, 완료형, 진행형을 갖춘 언어치고 완료형과 진행형은 보조동사 없이도 공기하는데 보조동사가 이들 양자와 공기하지 못하는 언어는 Traugott의 '고영어 문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의 갭은 우연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문법의 기능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L의 비판이다. Traugott의 주장과 이를 비판하는 측의 주장이 모두 입증될 수는 없는 형편이지만 어쨌든 그녀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에는 그녀가 만들어낸 규칙들이 너무 자의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현대영어문법의 어떤 규칙이나 특성이 고영어나 증영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가를 묻는 방식이 규칙의 자의적인 사용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고영어나 중영어의 문법을 형식화하는 데 현대영어에서 제기되는 주장들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Traugott는 시제(tense)를 현대영문법의 심층구조의 한 성분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녀는 시제가 고영어에서도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고영어문법에서도 현대영어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do 조동사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시제가 절의 첫 동사에 부착된 하나의 자질일뿐 심층구조의 성분으로 다루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물론 여기에서 첫 동사라 함은 go, drink, roast는 물론, have, be, may, can, must를 죄다 포괄한다. 범조동사가 현대영어에서는 조동사라는 하나의 통사범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고영어나 중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으며, 시제 또한 초기현대영어까지만 해도 동사적 자질이었을뿐 현대영어에서와 같은 심층구조 성분이 아니었다.

하나의 문법이론을 전제(前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영어, 중영어, 현대영어 등의 개별문법을 독자적으로 쓰고 이들을 형식화하고 나서 비로소 이들을 비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접근이다.

4.

Lightfoot는 1979년에 펴낸 *Principles of Diachronic Syntax*(이하 PDS로 부르겠음)에서 통사변화에 관한 매우 중요하고 명쾌한 연구를 학계에 내놓았다. 무엇보다도 그의 연구는 지금까지 통사변화의 연구에 결여되어 왔던 확고한 방법론을 수립하였다는 사실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겠다. 통사변화의 대상과 한계, 그리고 원인에 대한 그의 확고한 견해는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다른 이론들에 비하면 매우 설득력이 있다.

Lightfoot는 통사변화를 다루는 이론으로 확대표준이론(Extended Standard Theory)을 모델로 하는 문법이론(the theory of grammar)을 원용하고 있으며, 그에 의하면 이 이론은 변화이론(a theory of change)과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문법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언어가 가지고 있는 가능한 문법의 지식을 유전적으로 부여받으며,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오랜 세월을 두고 변질되어 온 부족한 언어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법이론에 그의 투명성원리(Transparency Principle: 이하 TP로 칭함)가 들어 있으며, 이 원리는 도출(derivation)에서 비롯되는 복잡성의 한계를 규정한다. 다시 말해서 TP는 도출은 최소로 복잡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다. 변화는 일부 우발적인 요인에도 기인하지만, 만약 변화의 수효가 누적되어 TP를 위배할 정도가 되면 이 원리를 갖고 태어난 언어습득세대는 언어자료를 재분석하여 불투명성(opacity)을 제거하기

에 이른다는 것이다.

재분석은 실제 표면구조상의 변화가 아니고 다만 구조기술상의 변화일뿐이다. Lightfoot에 의하면 역사적 언어개신의 중심은 언어습득에 있다고 보며, 언어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체는 언어습득세대가 부딪치는 문장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법을 만들어내는 직관이다. 가능할대로 간단한 문법을 찾아냄에 있어서 언어습득세대는 국부적으로 불투명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해 온 어인들의 모델과는 다른 문법을 만들어낸다. 문법의 기능은 예방보다는 치유에 있다는 그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이같은 재분석은 문법의 다른 부위에 예기치 않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고 이것이 이번에는 뒷세대에 의한 또다른 재분석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법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급격히 변할 수도 있음을 뜻하며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유일한 제약은 재분석의 결과로 비롯되는 문법은 문법이론이 과하는 요건들을 충족시켜 주며 양세대 간의 의사소통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이다. 문법이론이 과하는 위의 제한외에 변화에 대한 형식적인 제한은 없고, 다만 그의 변화이론은 다음 (9)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뿐이다.

(9) i) 양세대 간의 의사소통은 유지되어야 한다.

ii) 문법은 예방보다는 치유를 행한다.

iii) 가치가 덜한 문법일수록 재분석을 받는다.

iv) 일부 치유적 변화는 다른 변화들보다 더 잘 일어난다.

가능한 변화들의 한계를 형식화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이론보다는 문법이론에 집중해야 하며, 변화에 대한 설명은 바로 이 문법이론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로 일어난 변화들이 이 문법이론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입증해 준다는 것이다. Lightfoot의 문법이론은 변화를 설명해 주는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재분석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우리는 문법이 한계에 이르러 그 한계가 깨어지면서 재분석을 촉발하게 됨을 알 수 있으며, TP가 이 일을 떠맡게 됨을 형식화할 수 있다. 이같은 접근법에 의해 통시적 통사변화의 연구는 일반 문법이론에 기초한 연구와도 완전히 합치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⁶⁾

4.1. 영어 법조동사 발달에 관한 견해

Lightfoot(1979)는 제 2장에서 통사변화에 대한 자신의 문법이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예로 1500년경에 새 문법범주로 도입된 법조동사를 다루고 있다. Ross(1969)와는 달리, 그는 고영어 및 중영어에서는 법조동사라는 범주를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으나 현대영문법에서는 법조동사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oss의 주장에 따르면, 고영어, 중영어뿐만 아니라 현대영어 법조동사도 동사의 범주에 속한다.⁷⁾

6) Lightfoot(1979:149-150)

7) Lightfoot와 Ross의 견해차를 단적으로 말하면, L이 현대영어에서 비로소 법조동사 범주를 도입하고 있는데 반해서 R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조동사범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L이 R과 견해를

L이 제시하고 있는 영어 법조동사 변천의 개요를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고영어와 중영어의 법조동사 전신들(뒤에 법조동사로 재분석된 동사들)은 모두 동사의 통사적 자질을 띠고 있었다. 이들은 인칭과 수의 격변화를 겪으며 부정어(negative) 삽입과 도치에서도 동사와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i) 서로 나란히 위치하고, (ii) 부정사나 동명사 형태인 비정형(非定形: non-finite)으로 나타나며, (iii) 직접목적어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일련의 우연한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법조동사 전신들이 일반 동사와는 다른 별개의 그룹으로 고립되게 되었다. 이들 변화는 서로 별개의 독립적인 과정을 밟았지만, 끝내는 재분석이 일어나 조동사 전신들을 별개의 범주로 만들어냈다. 그 일련의 변화란 다음 (10)과 같다.

- (10) (i) 법조동사 전신들은 직접목적어를 갖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ii) 3인칭 단수 현재에 붙었던 어미를 상실함으로써 굴절형태상 다른 동사들과 구별되어진다.
 (iii) 법조동사 전신의 과거시제형은 실제 과거의 시간과는 무관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iv) 법조동사 전신은 예전되는 SVOM의 어순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SMVO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
 (v) 법조동사 전신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동사들은 to-부정사형을 띠게 된다.

이러한 변화들이 1500년경에 일어나면서 그 결과 법조동사 전신은 동사 범주 안에서 많은 예외적인 자질들을 띠게 된다. 또한 이 무렵 네개의 변화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면서 법조 동사 전신이 들어설 자리를 상실하게 된다.

- (11) (i) 부정사형태를 갖지 못하게 된다(마지막으로 쓰인것이 1565년).
 (ii) -ing형태로 쓰이지 못한다(마지막 예가 1556년).
 (iii) 두개의 법조동사 전신이 나란히 병렬되지 못한다(마지막 예가 1532년).
 (iv) have-pp.의 완료형으로 쓰이지 못하게 된다(마지막 예가 1528년).

L은 위의 사실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끌어내고 있다. 위의 변화들 때문에 생긴 동

달리하는 중요한 이유를 들면 대략 다음과 같다. 현대영어 법조동사는 동사가 갖고 있는 많은 동사적 특성들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영어 법조동사의 불규칙한 행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R은 [+Aux]란 자질을 도입하여 다른 일반동사와 구별짓고 있다. R은 현대영어 법조동사만을 다루고 있지만, 고영어 및 중영어시대의 법조동사가 동사와 동일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고영어 및 중영어 문법에는 [+Aux]자질이 물론 없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R의 설명방식으로는 왜 법조동사의 일부 동사적 자질들이 새 자질 [+Aux]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다시 말해서, 왜 이 자질들이 법조동사의 비정형(non-finite)들만을 제외시켰는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R의 설명방식으로는 이들 비정형 형태들의 동사적 소멸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이에 반하여 L의 설명방식에 의하면, 법조동사 전신들이 너무 많은 예외적 자질들을 지니므로써 법조동사 범주를 새로 만들어내는 재분석이 일어났으며 이 변화를 촉발시킨 것이 바로 L이 말하는 투명성원리이다. 이 재분석의 잇점은 법조동사 비정형들의 실종과 그 동사성을 깨끗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데 있다.

사의 예외적 자질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TP가 설정하고 있는 복잡성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이 불투명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언어습득세대들은 법조동사라는 별도의 새로운 문법 범주를 끌어낸다. 이같은 재분석이 있기 전에는 시제란 제 1 동사에 부착된 하나의 자질로 분석되어 왔었다. 그러다가 법조동사 전신이 非동사로 재해석됨에 따라 시제는 Aux절점하의 법조동사와 함께 생성되는 별도의 최초 성분으로 재분석되었다. 즉, 초기의 문장을 구성하는 구조조규칙 (12)가 재분석 뒤에는 (13)으로 바뀌었다.

(12) S→NP VP

(13) S→NP Aux VP

Aux→T(M)

재분석은 이 밖에 또다른 세가지 변화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변화들은 공교롭게도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

(14) (v) 부정어 삽입(Negative Placement) 규칙의 변화. 이와 함께 조동사가 없는 부정문이나 절에 do를 삽입하게 된다.

(vi) 주어-동사 도치규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do를 도입한다.

(vii) be going to, have to, be able to와 같은 유사 법조동사들을 도입한다.

L에 따르면, 변화 (14v)와 (14vi)은 법조동사의 재분석 이전의 도출형과 이후의 도출형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었다는 것이다. 고영어나 중영어에서는 동사에 적용되었던 양 규칙의 구조기술이 법조동사란 새로운 범주로 재분석되고 난 뒤에는 바뀌어서 이 규칙들은 V가 아닌 Aux에 더 민감하게 된다. 만약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부정구문과 도치구문에서의 do의 표준화를 설명할 길이 없을 것이다. 또한 법조동사의 부정형의 결여는 영어 표현력에 심한 제한을 가했을 것이며, 따라서 법조동사의 통사적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동사군들(be going to, have to, be able to)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14vii)은 보여주고 있다.

4.2. 영어 양화사의 발달에 관한 견해

영어 양화사의 발달은 조동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영어 양화사에 관한 글에서 Lightfoot는 양화사도 TP의 결과에서 비롯되는 범주 변화를 겪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법조동사의 경우와는 달리 양화사는 급격한 변화를 겪지는 않았다. 양화사는 본래 고영어에서는 형용사라는 통사범주에 속해 있었다.⁸⁾ 그러던 것이 고영어 이후에 형용사의 분포나 통

8) 고영어 양화사 전신이 과연 형용사와 분포행태가 같았는가라는 의문에 대하여, Bennett(1979:848)는 고영어에서 few, much, many는 술어적으로 쓰이고 있으나 all, both, each, every, most, some은 부가적으로만 쓰이고 있다는 OED의 예문들을 인용하면서 기저형에서는 양화사와 형용사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고영어의 양화사는 이미 한 가지 기능에서 형용사와는 달리 행동했으며, 형용사처럼 관계사절에서 도출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부가적인 위치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적 특성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반해서 양화사의 행태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 결과 양화사는 고립되어 끝내는 하나의 새로운 범주를 형성하게 되었다. 다음은 L이 원용하고 있는 Carlson(1978)의 논문에 따르기로 하겠다.

Carlson에 따르면, 고영어에서는 형용사와 양화사 전신은 그 분포와 기능에 있어서 동일하였으며, 따라서 고영어에서는 양화사란 별도의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후 중영어를 거쳐 오면서 형용사에서 일어난 일련의 변화가 이같은 분석을 불투명하게 만들었으며, 16세기말경 양화사 전신은 재분석을 겪고 양화사라는 별도의 범주로 생겨났다.

양화사는 현대영어에서는 독특한 범주에 속해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고영어의 양화사 전신은 그 분포에 있어서 매우 자유로웠다.

(16) a. 명사 앞에서

OE: wið *ealle wundela*, genim þas wyrte. c.1000 Sax. Leechd.

NE: all things to *all men*. 1893 Symonds, Grk. Poets iii. 89

b. 한정사 앞에서

OE: Ofer *al his rice*. 855 OE Chronicles

NE: With *all my heart*, With my full heart. 1847 Princess 1.193

c. 명사 뒤에서

OE: And *þa scipo alle* geræhton. 885 OE Chronicles

NE: And *they all* dead did lie. 1798 Coleridge. AM. IV. iv

d. 부분속격과 함께

OE: ðæt he spræc to *his liornæra sumum*, c.875 in OE Texts 178

NE: Higher up...there are *some of the most sublime scenes* I have looked on anywhere. E. Roper, By Track and Trail xv.224

e. 부동(浮動 : floating)

OE: *Hit* is Adame nu *eall* forgolden. a. 1000 Gen.(Grein) 756

NE: *Another* is *all* frivolity. 1850 Lynch, Theoph. Trinal xi. 217

f. 명사적으로

OE: *ælc* hine selfa begrindeþ gastes dugeðum. a. 1000 Gen.(Grein)

NE: *Each* did much...purify the spiritual self-respect of mankind. 1871 Morley,

Voltaire(1886) 3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 양화사 전신은 고영어에서 현대영어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또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고영어 형용사와 양화사 전신은 그 행태가 같았고 고영어 및 초기 중영어 시기에 형용사와 양화사 전신은 굴절어미를 공유하였다. 따라서 분포적으로나 형태

론적으로나 양화사 전신은 형용사와 동일하여, 양화사라는 별도의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a) 명사 앞에서나, (b) 한정사 앞에서나, (c) 명사 뒤에서나, (d) 부분속격과의 용법에 있어서나, (f) 명사적 용법에 있어서나, 양자가 모두 동일한 궤절을 공유하였다.

비교적 자유로웠던 형용사의 행동범위가 협소해지는 일련의 변화가 중영어에서 초기현대 영어에 이르는 동안에 일어났다. 이 무렵 양화사 전신을 제외한 형용사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한정사 앞에서 (b), 부분속격 앞에서 (d), 그리고 명사의 자리에서 (f),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된다. 이 변화들은 오히려 전혀 변화 없이 그대로 행동반경을 유지해 온 양화사 전신을 특유의 범주로 돋보이게 만들어 놓았다.

양화사 전신은 명사적 기능을 강화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태를 보이기 시작한다. (i) all과 both는 16세기말 처음으로 부분속격 of의 앞에 나타난다. (ii) 양화사 전신은 마치 명사인 양 's 속격을 띠게 된다. (iii) 이 무렵 양화사 전신은 전치사의 목적어로 나타나기도 한다. 양화사 전신은 이제 명사의 자리에서 운신폭이 커지면서 점차 명사의 범주에 소속될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양화사라는 별도의 범주로 재분석되었다.

이 무렵에 일어난 일련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 (16)과 같다.

(16) i) all과 both가 처음으로 부분속격에 나타난다.

ii) “한정사-양화사 전신-명사”구가 소멸된다.

iii) 양화사 전신의 복수 연결이 소멸된다.

iv) “형용사-한정사-명사”구가 소멸된다.

v) “명사-형용사”구가 소멸된다.

vi) 형용사의 명사적 사용이 이후로는 소멸된다.

vii) -ly가 부사를 만드는 생산적인 접미사가 되기 시작한다.

위의 사실은 이제 구구조규칙이 형용사를 명사 앞에서 생성하며, 양화사라는 새 범주가 이 보다 앞서 다른 자리에서 생성됨을 말해준다. 구구조규칙을 만들어보면 다음 (17)과 같은데 [Spec \bar{N}]은 양화사, 그리고 [Spec \bar{N}]은 한정사의 자리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7) 명사구 확장규칙

$$\bar{N} \rightarrow [\text{Spec } \bar{N}] \bar{N}$$

$$\bar{N} \rightarrow [\text{Spec } \bar{N}] \bar{N}$$

$$\bar{N} \rightarrow (\text{Adj}) N$$

이와 같은 규칙체계가 주어졌을때, (i)~(v)는 자동적으로 설명되며, (vi)은 형용사의 행태와 양화사의 행태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점에서 새 범주의 출현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영어 양화사의 출현은 조동사의 출현과 그 시기가 같다는 점에 유의 해야 한다. 16세기

말경에 일어난 일곱 가지의 표면상의 일련의 변화들은 새로운 명사구확장규칙들로 이루어지는 재분석의 결과이며, (i)~(v)와 같은 변화들의 동시성은 재분석으로밖에는 일괄적 설명이 없으며, 이 재분석은 위의 새 구구조규칙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양화사의 범주화와 조동사의 범주화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의 의문에 대하여 L과 C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양자의 변화는 같은 시기에 일어났으며, 또한 구구조확장규칙(\bar{X} convention)을 가정한다면(조동사는 [Spec \bar{V}]에 속한다), 이 두가지 변화는 모두 새로운 [Spec \bar{X}]의 절점 안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형식상 동일하다고 하겠다. 재분석은 전체적인 문법의 맥락 안에서 변화들을 관찰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고영어와 현대영어의 양화사를 각각 별도로 관찰하여 그들의 분포 형태가 같다고해서 이들 사이에 서로 연관성 있는 변화는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마찬가지로, 생성 문법이론의 제안들 안에서도 현대영문법의 한 가지 규칙을 가지고 이 규칙으로 도출되는 문장구조가 고영어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이 규칙을 고영어문법에 적용시키는 것도 잘못이다.

Carlson은 양화사 발생의 과정을 찰리 채플린이 등장하는 영화의 한 장면에 비유하고 있는데, 자원자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오라는 특무상사의 명령에 채플린을 제외한 모든 사병이 뒷걸음쳤고 그자리에 그대로 서 있던 채플린만이 본의아니게 ‘자원자’로 뽑힌다는 이야기이다.

4.3. 영어 to-부정사의 발달에 관한 견해

PDS에서 Lightfoot(186-199)는 범주변화의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있다. 그것은 to-부정사의 변신인데, to-부정사는 본래 명사구였던 것이 TP에 의한 범주변화의 결과로 명사구의 지위를 상실하고 동사구로 변했다는 것이다.

to-부정사가 본래 명사구였다는 가설은 고영어 원형부정사(나중에는 to-부정사가 이것을 대체하게 된다)가 명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뒷받침되고 있다.⁹⁾ 또한 선사 고영어의 부정사가 굴절체계를 비교적 온전히 갖춘 동사적 명사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이다. 고영어에 와서는 부정사 어미가 -an이었고 유일한 굴절형은 여격의 -enne였는데, 이 여격형은 전치사 to의 목적어로 나타났다. 부정사표시의 격어미마저 점차 쇠퇴함에 따라 부정사의 명사적 특성을 표시하기 위해 전치사 to가 도입되었고 그 후 부정사 to-V의 변형으로 for-to-V가 도입되어 병용되었다. 이리하여 to-부정사는 고영어와 초기 중영어의 시기에 원형부정사를 대체하기에 이른다. 굴절어미의 탈락은 더 이상 to-부정사를 명사구로 보지 않게 만들었으며, 이처럼 to-부정사가 명사구의 내면구조를 상실하게 되고 또한 명사

9) Visser(1963-73: § 1001)의 자료는 고영어의 동명사가 명사구였으며, 동명사와 to-부정사가 호환적으로 같은 자리에 나타났음을 시사하고 있다.

구로서의 운신풀, 즉 분포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다가 200년 뒤에 ‘for-to-V’는 ‘for-N-to-V’에 자리를 양보하게 된다.

중영어에 와서 to-부정사의 문법적 지위가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L은 재분석 전후의 to-부정사의 명사적 특성들을 비교하고 있다. 그는 명사적 특성들을 12개의 패턴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고영어 및 중영어의 구문들에 적용시키면서, to-부정사가 옛날에는 명사구로서의 행태를 취했으나 뒤에는 동사구로 재분석되었다는 가설을 끌어내고 있다.

그후 명사구로부터 동사구로의 전환은 다음 (18)과 같은 표면변화에서 알 수 있다.

- (18) i) ‘for NP to V...’의 출현
 ii) ‘for to V’의 소멸
 iii) ‘P to V’의 소멸
 iv) 수동태로 쓰이던 to-부정사의 소멸
 v) 분할구문에 쓰이던 to-부정사의 소멸
 vi) 굴절어미(-enne)의 소멸

그런데 이들 변화가 일어난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 하는 것이 놀랍다. to-부정사의 명사적 특성들이 모두 같은 시기에 소멸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분명한 결론은 여기에서도 재분석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재분석이 왜 일어났을까? 이 변화도 역시 TP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굴절이 왕성하던 본래의 부정사는 명사구 특유의 모든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굴절어미가 탈락되면서 서로 경합하는 두개의 형태, 즉 원형부정사와 to-부정사가 생겨났다. 새로 출현한 to-부정사를 만드는 전치사 to의 사용은 명사성(NP-hood)을 말해주는 좋은 증거이다. 명사적 특성은 그대로 이어져 고영어 및 중영어에도 to-부정사는 선사 고영어 시대의 것과 동일한 분포행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 뒤 to는 초기에 가졌던 전치사로서의 힘을 상실하게 되고 단지 ‘sandhi form’으로만 보이게 되었다. 이제 to sing은 다른 명사구들처럼 보이지 않게 되고 14세기 후반부터는 명사구와는 달리 행동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to-v를 명사구로 볼 수 없게 만드는 형태(‘for NP to V’)가 가끔 눈에 띄기 시작하였으며, 명사구 분석을 요하는 형태(‘for to V’)가 덜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 to-부정사의 명사성은 이제 희미해지면서 예외적 자질들을 갖는 명사구가 되어버렸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일련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와중에서 to-부정사도 범주의 재분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이 변화는 TP의 또 다른 결과로 볼 수 있다.

4.4. 영어 비인칭구문에 관한 견해

Lightfoot의 비인칭구문 분석은 비인칭→인칭에로의 변화를 설명한 Jespersen의 예문에 근거하고 있다.¹⁰⁾

10) Cf. Jespersen MEG III 11.2; 본래 비인칭구문이라 함은 비인칭무주어구문(e.g. *hine hungrep*)>

- (19) a. pam cynge licodon peran
 b. the king liceden peares
 c. the king liked pears
 d. he liked pears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문장 (19a)는 OVS 어순의 예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명사 peran과 동사의 수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19b)에서는 명사 the king이 여격 어미를 상실하고 있으나 동사 liceden은 이직 복수 어미를 갖고 있다. (19c)에서는 명사 굴절어미의 소실과 동사 단수복수 어미 구별의 소실로 인해 OVS 또는 SVO의 어순 어느쪽으로도 분석될 수 있게 된다. SVO로 어순이 고정되었을 무렵 (19c)의 SVO 분석이 더 가능해졌을 것이며, (19d)의 출현은 비인칭구문에서 인칭구문으로의 변화가 사실로 굳혀졌음을 확인시켜 준다.

L의 제안을 요약하면, 고영어의 기본 어순은 (20)과 같은 SOV이므로, (19a)는 (20)에서도 출되었으며, 명사구후치(NP Postposing)가 주어 NP를 오른쪽 끝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 (20) peran pam cynge licodon

S O V

L은 (19b)의 구조를 OVS의 예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 어순은 12세기 후반 영어의 어순이 SVO로 바뀌었을 때도 아직 나타나곤 했던 구조이다. 그래서 L은 (19b)의 구조를 다음 (21)과 같은 기저에서 도출하고 있다.

- (21) peares liceden the king

S V O

(19b)를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명사구 후치가 적용되어 peares를 오른쪽 끝에 이동하고, 다음으로 명사구 전치(NP Preposing)가 적용되어 the king을 왼쪽 끝에 이동한다. 그리하여 (21)을 다음 (22)와 같이 도출하게 된다.

- (22) the king liceden peares

peares liceden the king으로부터 the king liceden peares에의 도출이 언어습득세대에게는 불투명하고 이해하기가 곤란했을 것이다. liceden의 어미가 탈락하여 liked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the king liked pears의 기저구조가 불투명했을 것이다. 심층구조를 the king liked pears로 잡는 것이 심층구조를 peares liked the king으로 잡는 것 보다 표면구조 the king liked peares에 더 가까워졌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하여 the king liked pears를 SVO로 재분석하였다는 것은 기저구조와 표면구조 간의 거리를 좁혀주었음을 의미하며 L이 내세우고

he hungers; *me thynketh I heare*>I think that I hear)을 말하는데, Lightfoot가 예로 들고 있는 것은 비인칭주어구문의 인칭주어구문으로의 주어 귀속(subject-assignment)의 예이다.

있는 TP를 뒷받침하고 있다.

문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이 변화는 어휘의 의미내역(semantic specification)에 일부 변화를 가져왔다. like의 하위법주는 그대로 NP_NP이고 의미내역만 「-에게 즐거움을 주다('give pleasure to')」에서 「-로부터 즐거움을 얻다('receive pleasure from')」로 바뀌었다.

이같은 통사변화는 초기의 의미론적 혹은 음운론적 변화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SVO 어순으로 굳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 TP는 문장구조들이 가장 투명하게 분석되기를 요하며, 이 원리는 형태론적인 그리고 의미론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재분석을 초래할 만큼 충분한 힘을 발휘하였으며, 또한 형태론적 의미론적 변화를 수반하였다. 이 재분석은 어휘의 하위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순수한 형식의 변화로 기술되어 왔고 L은 이것을 자율통사론에 귀속시키고 있다. TP는 문법에 가하는 하나의 제약인데, 이것이 통사변화에 작용하여 문법의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변화들로 생겨나는 통사규칙들의 복잡성을 제거한다. 그러므로 TP는 통사부문에 제약을 가하는 초문법적인(metagrammatical) 원리라는 것이 L의 주장이다(PDS p. 239).

5.

Lightfoot의 이론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PDS에서 그가 보여 주려는 것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 가능한 견해들 중에서도 가장 올바른 문법이론[여기서는 생성문법의 확대표준이론]을 정립 내지는 뒷받침하는 실례(實例)들을 찾아내는 것이 통사변화 연구의 목적이다. 둘째, PDS에서 그가 설정하고 있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문법이론에는 문법의 각 부분들에 유효적 가치들을 지정해 주는 평가척도가 들어 있다. 보다 복잡한 유효적 가치를 지닌 문법일수록 변하기 쉽다. 여러가지 변화들이 문법을 매우 복잡하게 [유효가치가 많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문법은 유효를 줄이기 위해 재분석을 겪게 된다. 언어는 예방보다는 치유를 행한다. 이 이론 안에 들어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변화들의 동시성인데, 서로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변화들이 문법 안에서 일어난 한 가지 규칙[재분석]의 변화의 결과로 동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저의가 이 개념 안에 들어 있다.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개념은 「투명성 원리」인데, 이는 기저구조와 표면구조와의 거리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제약이다. 문법이 매우 포가 난다는 것은 기저구조가 불투명해진다는 뜻이며 언어학습세대가 분간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불투명성이 어떤 한계에 이르면 심층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표면구조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 문법은 재구성된다. 불투명성을 초래하는 복잡성, 즉 예외적 행태의 증폭이 TP의 개입을 결정한다.¹¹⁾

11) Lightfoot(1979, p.121): The Transparency Principle required derivations to be minimally complex and initial, underlying structures to be 'close' to their respective surface structures,

조금 멀리는 청년문법가들로부터 가까히는 생성문법론자들에 이르기까지 통사변화에 대한 통찰력있고 설득력있는 연구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전자는 추상적 형식문법의 기여로 문법들보다는 문장 형태들의 차이점만을 비교 분류함으로써 통사변화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한편 후자는 생성변형문법의 틀 안에서 통사변화에 관한 몇몇 주목할만한 연구가 있었으나 제약이 느슨하여 단일 문법이론 안에서도 여러가지 견해가 생겨나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원칙을 모색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Lightfoot의 연구는 영어 통사변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¹²⁾ 통사변화 연구에 대한 그의 방법론은 여태껏 다른 연구들에서는 결여되었던 것이며, 이 점에서 그의 방법론에서 보여주는 통찰력과 그의 이론의 중요성이 돋보인다 하겠다. 앞으로의 영어 통사변화 연구에 자극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¹³⁾

참 고 문 헌

- Allen, C. (1975). 'Old English modals'. In Grimshaw, J. ed. (1975) *Papers in the History and Structure of English*. Amherst: Univ. of Mass.
- Andersen, H. (1973). 'Abductive and deductive change.' *Language* 49, 4, 765-93.
- Anderson, J.M., & C. Jones, eds. (1974). *Historical Linguistics*.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storical Linguistics. Amsterdam: North Holland.
- Bennett, P.A. (1979). 'Observations on the transparency principle.' In *Linguistics* 17, 843-861.
- Carlson, A. (1978). 'A diachronic treatment of English quantifiers'. Unpublished MA thesis. In *Lingua* 46, 295-328.
- Chomsky, N. (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In R.A. Jacobs & P.S. Rosebaum, eds.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Waltham: Ginn & Co.
- Chomsky, N. (1977). 'On *wh* Movement'. In Culicover, Wassow & Akmajian eds. (1977) *Formal Syntax*. New York: Academic Press.

12) Romaine(1981:278)은 Lightfoot의 TP를 비판하기에 앞서 PDS는 특정 문법 모델의 틀 안에서 본격적이며 포괄적인 통사변화 이론을 제시한 선구적 연구업적임을 인정하고 있다.

13) Lightfoot의 분석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는 논문들이 나왔다. (i) TP가 통사변화를 설명하는 일관성있는 원리는 되지 못하며, 통사변화가 심층구조의 불투명성에서 반드시 연유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 차질들의 불편한 사용에서 비롯되며, 비인칭구문의 변화는 SVO 어순의 확정에서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격 굴절체계의 붕괴내지는 소실에 기인한다는 견해(Bennett, 1979: 843-861), (ii) TP와 자율통사이론을 비판하고, 언어심리학적(e.g. perceptual strategies) 또는 사회언어학적(socio-linguistic) 접근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견해(Romaine, 1981:277-300), (iii) Lightfoot의 TP와 재분석을 수용하면서도, 재분석을 두 가지 유형으로(즉, 급격한 재분석과 점진적이고 수의적인 재분석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Fischer and van der Leek, 1981:301-350) 등이 있다.

- Emonds, J. (1972).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English Syntax: root, structure-preserving and local transformations*. N.Y.: Academic Pr.
- Greenberg, J.H. (1966). 'Some universals of gramm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s'. In J.H. Greenberg, ed. *Universals of Language*. Cambridge, Mass.: MIT Press.
- Halle, M. (1962). 'Phonology in generative grammar'. *Word* 18, 54-72.
- Hornstein, N. (1977). 'S and the \bar{X} convention'. *Linguistic Analysis* 3.2, 137-76.
- Jackendoff, R.S. (1977). *\bar{X} syntax: a study of phrase structure*.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no. 2. Cambridge, Mass.: MIT Press
- Jespersen, O. (1909~49).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vols. I-VII. London: Allen & Unwin.
- King, R.D. (1969).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Kiparsky, P. (1968). 'Linguistic universals and linguistic change.' In E. Bach & R. Harms, eds.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Klima, E. (1964a). *Studies in Diachronic Transformational Syntax*.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Klima, E. (1964b). 'Relatedness between grammatical systems.' *Language* 40.1, 1-20.
- Langacker, R. (1977). 'Syntactic re-analysis., In Li (1977).
- Li, C. ed. (1977). *Mechanisms of Syntactic Change*. Austin: Univ. of Texas Press.
- Lightfoot, D.W. (1979). *Principles of Diachronic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awley, N. (1976). 'From OE/ME 'impersonals' to 'personal constructions: what is a 'subjectless' S?.' In Steever, Walker & Mufwene, eds. (1976). *Diachronic Syntax*. Chicago: CLS
- Ross, J.R. (1969). 'Auxiliaries as main verbs'. In W. Todd, ed. *Studies in Philosophical Linguistics*, Series I. Evanston: Great Expectations.
- Traugott, E. [Closs] (1965). 'Diachronic syntax and generative grammar'. *Language* 41.2, 402-15.
- Traugott, E. [Closs] (1969). 'Toward a grammar of syntactic change.' *Lingua* 23, 1-27.
- Traugott, E. [Closs] (1972). *The History of English Syntax*.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Visser, F.Th. (1963-73). *An Historical Syntax of the English Language* vols. I-IIIb. Leiden: Brill.

《Abstract》

The English Syntactic Changes and Theory of Grammar**In-Sook Kim**

Several theories have been proposed recently on the diachronic study of English syntax. They are the results of the work on diachronic syntax conducted in a generative perspective. In many ways the earliest work by Klima on case markings and *wh*-movement is the best, at least from the viewpoint of methodological clarity. Traugott's careful study of English auxiliary is instructive from a similar point of view. Lightfoot has made a very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diachronic syntax. Lightfoot's view of what constitutes syntactic change and what causes it is more convincing when compared with other theories of syntactic change.

In this paper, I review some of the pre-theoretical difficulties which arise in the study of diachronic syntax, sketch each theory briefly, and point out its problems and defects. Regardless of a few criticisms directed to Lightfoot, which come from both generative and non-generative camps, his grammatical theory—based on the Extended Standard Theory model—seems more plausible and explanative.